

킨텍스, 몽골 울란바타르에 신규 전시컨벤션 짓는다

한-몽골 포럼서 업무협약 체결... 마이스 역량 노하우 전파
건립 정보공유·홍보 등 협력... 기업 간 비즈니스 기회 창출

킨텍스(KINTEX)가 인도 뉴델리 ‘야쇼부미(Yashobhoomi)’와 말레이시아 페낭 ‘PWCC’에 이어 또다시 몽골 울란바타르까지 해외 전시컨벤션센터 업무영역을 확대한다.

이는 몽골 수교 35주년을 맞아 국빈 방문에 나섰던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사절단 일원으로 참여한 킨텍스 이민우 대표이사가 지난 9일 오후 5시(현지시간)에 이 같은 성과를 일궈내 국내외 MICE 산업계의 높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날 양국 정상 및 정·재계 인사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란바타르 호텔에서 열린 ‘한-몽골 비즈니스 포럼’에서 이 대표이사와 몽골상공회의소 바타르자브 르하그바자브(Baatarjav Lkhagvajav) 회장은 울란바타르에 새롭게 조성하는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대한민국 마이스 전시영토가 유라시아 대륙까지 뻗어 나가는 초석을 다진 것으로 평가된 가운데

양국 경제부처 장관들이 보증인적 지위로 자리를 함께해 양 기관의 마이스 분야 실질적 협력의 공식성과 향후 사업 연계 가능성을 한층 높였다.

또 지난 5월 사전 체결한 ‘전시사업 협력 업무협약’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몽골 현지의 전시컨벤션 인프라 조성 및 운영 등 고도화된 마이스 전문 분야까지로 협력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마이스 분야 미래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전략적 협력에 나서며 ▶몽골 신규 전시장건립 관련 정보공유 ▶조사 및 타당성 검토 및 전략수립 공동 수행 ▶전시회 정보 공유 및 홍보 ▶전시회 통한 기업 간 비즈니스 확대 등 구체적인 결실을 다져 나가기로 약속했다.

협약식에서 몽골상공회의소 바타르자브 르하그바자브 회장은 “최고의 마이스 역량을 보유한 킨텍스의 노하우가 몽골에 전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양국 간 더욱 활발하고 실질적인 전시산업 교류와 인



몽골 울란바타르 호텔에서 지난 9일 열린 ‘한-몽골 비즈니스 포럼’에서 이민우 킨텍스 대표이사(왼쪽 두 번째)와 몽골상공회의소 바타르자브 르하그바자브(오른쪽 두 번째) 회장이 울란바타르에 새롭게 신축하는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킨텍스 제공>

프라 구축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민우 킨텍스 대표이사는 “킨텍스의 운영 노하우와 향후 건립될 세계적 수준의 몽골 신규 전시장이 양국 기업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가고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hihoilbo.co.kr

수원상의, 직업진로캠프 총평 보고회... 직업계고 학생 5150명 수료

수원상공회의소가 ‘2026년 수원 직업진로캠프 총평 보고회’를 열었다.

지난 10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보고 회에는 김재욱 수원상의 회장과 김현수 수원특례시 제1부시장, 방광현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선경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지역 직업계고 교장·교감, 유관기관 관계자,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직업진로캠프는 지난 3월 6일부터 4월 9일까지 수원지역 직업계고 8곳에서 학교별 1박 2일 일정으로 운영됐다. 신입생 1천757명과 2학

년 1천686명, 3학년 1천707명 등 모두 5천150명이 수료했다.

이날 총평 보고회는 삼일고등학교 치아리딩 동아리 ‘아에토스’의 공연으로 시작해 진로캠프 결과 보고 영상 상영과 우수 학생 상장 수여가 진행됐다.

김재욱 회장은 “이번 캠프가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탐색하고 지역 산업과 기업을 이해하는 기회가 됐다”며 “수원상의도 학교와 지역 기업을 잇는 가교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은채 기자 chae@khihoilbo.co.kr

삼성전자, 용인 반도체 팹 2029년 가동 추진

당초 계획보다 1~2년 앞당겨... 정부 국가산단 조기 조성 기조 맞춰 속도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의 용인클러스터 첫 번째 팹(공장) 가동 시점이 당초 계획보다 약 1~2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용인 국가산단에 들어설 총 6기 반도체 생산공장 중 첫 번째 팹의 가동 목표를 2029년으로 설정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는 그동안 거론돼 온 첫 가동 시점 2030~2031년보다 1~2년 앞당겨진 것으로, 정부의 용인 국가산단 조기 조성 기조에 맞춰 삼성전자 역시 전체 사업 일정을 앞당기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6일 대통령 주재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에서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첫 번째 팹이 2029년 가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부지 조성 공사가 늦어도 올해 하반기에는 시작되고, 2027년 중 팹 착공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통상 최첨단 반도체 공장 건설에 2년가량 소요되는 만큼 이를 위해서는 부지 조성과 토지·지장물 보상, 수용재결, 시공사 선정 등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정부가 용인 국가산단 조성 기간 단축 의지를 밝힌 만큼, 용인 산단의 전력과 용수 등 핵심 인프라 공

급 일정 역시 앞당겨질 수 있다는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3기가와트(GW) 규모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조기 착공과 2·3단계 전력 공급 일정 단축, 단계별 용수 공급 조기화 등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첫 번째 팹의 2029년 가동 가능성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용인 국가산단은 삼성전자의 차세대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조성되는 국가 전략사업이다.

첫 번째 팹 가동 시점이 앞당겨질 경우 생산능력 확충은 물론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생태계 조성 효과도 예상보다 빨라질 것으로 기대되며 후속 사업 일정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세용 기자 lsy@khihoilbo.co.kr



풍무역세권 마지막 단지... 2577가구 브랜드타운 완성

■ 호반써밋 풍무III

호반건설이 김포 풍무역세권 마지막 단지인 ‘호반써밋 풍무III’의 견본주택을 지난 10일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했다.

앞서 공급된 ‘호반써밋 풍무’와 ‘호반써밋 풍무II’에 이은 마지막 공급으로, 이번 분양이 마무리되면 풍무역세권에는 총 2천577가구 규모의 호반써밋 브랜드타운이 완성된다.

이번 사업은 김포시 사우동 458번지 일원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B4블록에 조성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8개 동, 전용면적 59㎡와 84㎡, 총 660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로는 ▶59㎡A 130가구 ▶59㎡B 108가구 ▶84㎡A 178가구 ▶84㎡B 103가구 ▶84㎡C 65가구 ▶84㎡D 76가구로 구성된다. 최근 주택시장에서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평형 위주로 공급되는 만큼 실수요자의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분양 일정은 오는 2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1일 1순위, 22일 2



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당첨자는 28일 발표되며 정당계약은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실시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점도 수요자들의 관심을 끄는 요소다. 입주는 2029년 5월로 예정돼 있다.

입지 여건도 풍무역세권의 강점을 그대로 이어간다. 김포골드라인 풍무역까지 도보 약 5분 거리로 김포공항역 환승을 통해 서울 강서권과 여의도 등 주요 업무지구 접근성이 우수하다.

도로 교통망도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다. 김포한강로와 김포대로를 이용하면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이동이 가능하며, 풍곡나들목과 영사정나들목 등 광

역도로망도 순차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교육환경 역시 이 단지의 강점으로 꼽힌다. 풍무역세권 내 공급단지 가운데 초등학교와 유치원, 중학교 예정 부지와 가장 가까운 입지에 들어선다. 생활 인프라로 풍무동과 사우동 기존 상권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계약전 수변공원과 선수공원 등 녹지공간도 가까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단지 내에는 피트니스센터와 실내골프연습장, XR 기반 키즈카페, 어린이집 등 가족 중심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된다.

견본주택은 김포시 사우동 547-8번지에 마련됐다. <김포>